

필리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문화연구

배 재 창[†]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필리핀에서는 기독교 율법에 의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코피노가 잉태되었을 때 한국인 아버지는 낙태를 원하거나 부양을 포기하더라도 필리핀인 어머니는 부득이 출산하여 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낙태를 금지하는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이 한국 참여자들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였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에 비해 덜 좋아했던 한국 참여자들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내외현적으로 조금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단, 한국의 남성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는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싫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십자가 사진을 사용하여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필리핀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만, 한국 참여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여성들은 필리핀 사람들처럼 코피노 어머니에게 편견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 남성들은 편견을 보이며, 십자가로 인한 점화효과가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코피노 어머니, 필리핀, 명시적 태도, 암묵적 태도, 기독교

[†] 교신저자 : 배재창,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 fwulf@naver.com

필리핀은 천혜의 자연과 저렴한 물가로 인해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라 되었고(지충남, 2015), 다른 영미권 국가들의 30% 수준에 불과한 영어 연수비용은 많은 한국학생들에게 큰 유인자로 작용하였다(장준오, 이완수, 고성혜, 2011, p. 16). 그리하여 2015년에는 필리핀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134만 명에 이르렀고(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인 이주민도 8만 9천 명에 달했다(주필리핀 대사관, 2015). 그런데 일부 남성 관광객들이 성매매를 하고, 유학생 및 장기체류자들이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많은 코피노(Kopino)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코피노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인 한국계 혼혈아 2세를 의미한다(지충남, 2015).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코피노 인구는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기호일보, 2016. 11. 14).

한국인 아버지들이 한국으로 도피한 후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코피노 가족은 궁핍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김희주, 주경희, 우수명, 2013). 이러한 경제적 문제 외에 코피노와 어머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먼저 코피노는 외모가 필리핀인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종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Sadorra, 2014).

실제로 코피노는 한국계 혼혈이지만 아버지로 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받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필리핀 문화만 교육받게 된다. 따라서 외적인 모습은 한국인과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한국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자녀를 지켜보면서 어머니는 함께 아파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장명선, 2015).

이런 상황에서 코피노 가족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코피노 가족은 결손가족의 형태를 띠므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장명선, 2015). 예컨대 아버지가 없는 코피노에 대해 주변 친구들이 편견(prejudice)을 보일 수 있고(양숙미, 2009),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정현미, 2011). 코피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그들은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것이기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이애련, 2015; 홍기대, 2011).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주변 사람들이 코피노 가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코피노 가족들이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고 있으며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5. 5).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 코피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일본인인 자피노(Japino)의 경우 2008년부터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지충남, 2015). 지금은 코피노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미래에 국적법이 개정되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한국인들은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 이에 코피노 가족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코피노 연구 현황

필리핀 현지에서는 2005년 코피노 아동 학회(Kopino Children Association)가 창립되었다. 하

지만 코피노 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Sadorra, 2014).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코피노가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옹호되며 코피노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지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Sadorra, 2014). 아울러 Edelson(2015)은 코피노에 대해 한국이 갖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코피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친자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계 필리핀 혼혈 2세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그에 따른 표상을 분석하여 자피노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Megumi, 2013), 일본 생활을 통해 일본과 필리핀의 문화적 뿌리를 모두 갖고 있는 자피노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Da-Anoy, 2016). 이와 같이 필리핀과 일본에서는 혼혈 2세의 정체성과 국적 취득으로 인한 아버지 국가로의 통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코피노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충남(2015)은 코피노 가족의 현황과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코피노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처럼 국적법 개정을 통한 코피노 유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희주 등(2013)은 코피노 어린이재단에서 참여관찰과 운영진 면담을 통해 코피노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코피노 문제에 대해 한국인의 입장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진짜 코피노 가족은 누락된 연구로 볼 수 있다.

코피노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코피노에게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코피노

어머니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하지만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고려할 경우 코피노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취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적응하지 못한 대다수 어머니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코피노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 2017. 3. 23). 코피노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어머니의 부적응은 곧 코피노 가정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그녀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코피노 문제의 발생 원인

현재와 같이 코피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와 매체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무책임을 거론하고 있다(여성신문, 2016. 10. 24; 연합뉴스, 2016. 5. 5; 지충남, 2015). 실제로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필리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양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 유학생 및 한국에 가족이 있는 유부남들은 코피노의 출산을 전후로 한국에 귀국한 다음 필리핀 여성과 연락을 단절하였다(김희주 등, 2013; 지충남, 2015). 그러나 한국인 아버지의 도피는 코피노 탄생에 의한 결과에 가깝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코피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넘어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필리핀 간 문화차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관광객들은 필

리핀 문화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필리핀 생활을 시작하기 쉽다.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식민지배로 인해 국민 중 천주교 신자가 83%에 이르고, 개신교도는 9%로 기독교 국가에 가깝다(지충남, 2015).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이며, 아기 예수의 옷을 갈아입히는 시놀로그(Sinoulog)이란 행사가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다(한국일보, 2016. 1. 6). 이와 같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시하고 살인을 금하는 기독교 율법은 자연스럽게 필리핀 법률에도 반영되어 낙태를 국가차원에서 금지하게 되었다(김희주 등, 2013). 따라서 아이를 잉태한 필리핀 여성들은 연령이나 양육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출산하게 된다. 코피노 사례에서도 한국인 아버지들은 필리핀 어머니에게 낙태를 권유 및 강요하지만 필리핀 고유의 사회문화적 문제로 인해 출산 이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세계일보, 2015. 9. 2; 여성신문, 2016. 10. 6).

하지만 모순되게도 필리핀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으로 2003년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 33%만이 피임을 하고 있었고(National Statistics Office Manila, 2004, p. 17),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6년에도 피임비율은 39%에 머무르고 있었다(UN

Population Fund, 2016, p. 97).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안문석, 2016),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피임비율은 더욱 저조할 수 있다. 이에 피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10대 여성들이 성관계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1998년 필리핀의 10대 여성 중 360만 명이 임신을 하였는데, 여기서 78%는 피임하지 않은 첫 성경험에서 임신한 것이었다(Singson, 2008. 6. 20). 또한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대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Natividad, 2013). 필리핀에서는 18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므로 17세 이하의 산모들은 모두 미혼모로 볼 수 있는데, 연령별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3.1%(약 9만 명)에서 2008년 4%(약 12만 명)로 증가하였다(Natividad, 2013; Voanews, 2016. 7. 7).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2016년 피임비율이 69%로 필리핀 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1 참고, UN Population Fund, 2016, p. 96). 이는 한국 여성들이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피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부모에게 질환이 있거나 결혼할 수 없는 관계 등의 조건¹⁾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005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표 1. 필리핀과 한국 여성의 피임비율과 10대 출산율 비교

구 분	피임비율 (2016년)	10대 출산율 (2006-2015년)
필리핀	39%	5.7%
한 국	69%	0.2%

주. UN Population Fund(2016) pp. 96-97 참고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셋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넷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 필리핀 여성들이 출산하기 시작하는 연령별 비율(1993년-2008년)

연 령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15-17세	1.8%	2.3%	3.1%	4.0%
18-19세	14.5%	15.3%	17.2%	19.3%
15-19세	6.5%	7.2%	8.0%	9.9%

주. Natividad(2013) p. 34에서 그림 5 참고

34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미혼여성의 경우 낙태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 2017. 1. 24). 그리하여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10대 여성의 출산율이 0.2%에 머물러 필리핀의 5.7%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UN Population Fund, 2016, pp. 96-97).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피임을 하고, 혹시 임신하게 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낙태를 선택하기에 필리핀에 비해 10~20대 미혼모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2016)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미혼모는 350명에 불과하였고, 20~24세 미혼모는 1,929명이었다.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필리핀에는 미혼모들이 많은 편이지만 한국에는 미혼모들이 적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혼모들이 소수자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미혼모들을 단순히 소수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코피노 어머니의 경우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므로 미혼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코피노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미혼모 심상(image)

에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여성이라는 심상이 부가되면서 강한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김혜영, 2013; 성은영, 권지은, 황순택, 2012). 그러나 필리핀인의 관점에서 코피노 어머니는 많은 미혼모에 포함되는 부류이기에 익숙한 대상으로서 편견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신학진, 2013). 아울러 낙태가 금지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코피노 출산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의 점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코피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性)과 낙태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기독교 중심의 필리핀 문화 및 유교 중심의 한국 문화에 바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코피노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독교가 환기될 경우 낙태금지나 생명존중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되어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필리핀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및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노종해,

2002). 따라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점화되면 공동체에 바탕한 우리성 즉 끈끈한 유대관계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우리성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재창, 한규석, 2015). 한편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으므로, 기독교의 점화로 인해 환기된 사랑이 상대방과 연합될 수 있다(노종해, 2002).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사랑을 점화했던 결과, 우리성 점화와 마찬가지로 부분(자신)보다는 전체(우리)를 지각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신홍임, 김민식, 2012; Kühnen & Oyserman, 2002).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27.6%(개신교: 19.7%, 천주교: 7.9%)로 주류가 아니므로(통계청, 2016), 기독교의 점화효과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하더라도 사랑이나 우리성을 떠올릴 가능성은 필리핀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기독교와 낙태금지 및 코피노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독교가 환기되더라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감소하지 않으리라 예상하였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편견은 지각자의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외집단인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Blair, 2001, p. 361), 주류인 자신들에 비해 외집단을 낮은 계층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Jones, Dovidio, & Vietze 2013, p. 32). 따라서 편견의 직접적인 표현은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고, 편견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대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Fazio & Olson, 2003). 실제로 미국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흑인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백인일수록 흑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강하게 나타났다(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이러한 결과는 편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할 경우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 및 제시하려는 특성을 지니므로 점화 전 명시적 평가결과를 기억할 경우 점화 후 평가에서 이전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Kelley & Mirer, 1974; Suh, 2002).

하지만 편견을 암묵적으로 측정할 경우 대상에 대한 부정반응시간과 긍정반응시간의 차이값을 통해 평가결과를 간접적으로 산출하게 된다(Greenwald & Banaji, 1995). 예컨대 코피노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간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긍정평가 시간이 더 빠르면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이지만, 부정평가 시간이 더 빠르면 싫어하는 반응 즉, 편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암묵적 측정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연구목적에 파악하기 어렵고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측정하더라도 태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기 어렵다(Dovidio, Kawakami, Johnson, Johnson, & Howard, 1997).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인지적 처리 용량을 최소화한 암묵적 처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Bargh, 1989), 명시적 처리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Devine, 1989),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암묵적 측정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아울러 피부색이나 인종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경우 암묵적인 경로를 통해 전파될 확률이 높다(나은영, 권준모, 2002; Olson & Fazio, 2002). 이러한 근거들에 바탕하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측정과 함께 암묵적 측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두 측정치의 관계를 검토해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편견을 감추려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코피노 가족은 대부분 가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성향자보다 공정(fairness)과 돌봄(care)의 원칙을 더 강조하고(Graham, Haidt, & Nosek, 2009),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김혜숙, 2000). 따라서 코피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진보성향자들이 더욱 우호적일 수 있다.

현재 코피노 가족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노를 직접 만나본 한국인은 극히 드물고,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코피노 문제를 바라보는 매체들의 관점이 중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방송에서 코피노 가족은 연민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기호일보, 2016. 11. 14; 여성신문, 2016. 10. 24 등). 한국인의 입장에서 코피노 어머니를 가엽게 여긴다면 명시적으로는 편견이 없거나 약한 것처럼 응답하고(김희경, 2016), 가엽게 여기지 않더라도 편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 받을 수 있으므로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처럼 왜곡할 수 있다(Fazio & Olson, 2003). 그러나 암묵적인 차원에서는 미혼모(정현미, 2011), 저소득층(전은희, 2015), 필리핀 사람(홍기대, 2011)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 암묵적으로는 싫어했지만 명시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응답했던 것처럼(Baron & Banaji, 2006; Fazio et al., 1995), 한국인들 역시 동남아시아인의 피부색과 얼굴에 대해 암묵적으로 강한 편견을 보였지만 명시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배재창, 정재훈, 한규석, 2012; 한민, 2011).

반면 필리핀에는 미혼모나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편이다(안문석, 2016; Natividad, 2013). 아울러 코피노 가족이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필리핀인은 한국인과 달리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접해본 대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된다(Moreland & Beach, 1992). 그러므로 필리핀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한국보다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필리핀인은 코피노 가족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를 왜곡시킬 동기가 약하므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의 괴리가 크지 않을 수 있다(Fazio et al., 1995).

연구의 개요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미혼모인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내외현적으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기독교’가 환기되었을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코피노 가족에 대해 알려주는 ‘설명문’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및 암

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 (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이하 IAT)’를 한국어 양식과 영어 양식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은 먼저 연습용-IAT를 수행한 후 실험자로부터 코피노 가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1차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 1차 IAT를 수행하였다. 1차 측정이 끝나면 집단을 둘로 나누어 점화조건의 참여자들은 십자가 사진이 배경에 추가된 2차 설문지와 2차 IAT를 수행하였고, 통제조건의 참여자들은 십자가 없이 1차 측정 때와 동일한 설문지 및 IA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 1.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 1-1. 한국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편견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고, 암묵적으로도 편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기독교 점화로 인한 효과는 한국인²⁾보다 필리핀인에게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기독교를 점화하면 필리핀인은 모든 차원(명시, 암묵)에서 코피노 어머니를 더욱 좋아할 것이다.

2) 한국인은 기독교가 점화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이는 영가설에 해당되어 가설 2-2는 생략했다.

연구 방법

실험 참여자

한국 및 필리핀의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15명(한국: 66명, 필리핀: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각 조건에 할당된 인원은 표 3과 같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남성 16명(24.2%), 여성 50명(75.8%)이었고, 필리핀은 남성 13명(26.5%) 여성 36명(73.5%)이었다. 참여자들은 PC실에서 2명씩 참여하되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용하지는 않았고,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실험 설계

독립변인은 국가조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 통제) 및 반복측정(집단 내: 처치 전 1차 검사, 처치 후 2차 검사)으로 구성된 2X2X2 혼합요인 설계이며, 종속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및 암묵적 평가이다.

코피노 가족 이야기

실험 중 코피노를 모르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었고, 코피노에 대한 인지도식이 국가나 개인마다 다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통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가상의 코피노 가족 이야기를 한국어판과 영어판으로 만들었고,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한국어판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고, 영어판은 언어만 다를 뿐 등장

표 3. 국가 X 처치조건에 따른 참여자의 분포(단위 : 명)

구 분	처치조건		전 체	
	점화조건	통제조건		
국 가	한 국	36(33)	30(28)	66(61)
	필리핀	27(26)	22(21)	49(47)
	합 계	63(59)	52(49)	115(108)

주. 괄호 안은 실험을 마치지 못했거나 오반응 비율이 10%를 초과한 7명(한국 5명, 필리핀 2명)을 제외하고 후 분석에 포함된 인원 수

인물과 내용이 동일하였다.

소피아의 이야기

‘민호’는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소피아’라는 필리핀 여성을 만났습니다. 민호와 소피아는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동거하였습니다. 소피아는 민호의 아기를 임신하였지만, 민호는 소피아에게 낙태를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민호는 돌아온다는 기약 없이 소피아를 떠나버렸습니다.

필리핀에 홀로 남겨진 소피아는 ‘Jake’라는 코피노 소년을 출산하였습니다.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의 혼혈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피아는 Jake를 혼자 기르고 있습니다.

암묵적 연합검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인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Inquisit-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본형-IAT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기독교를 점화하기 위해 기본형-IAT의 배경화면에 십자가 사진을 삽입한 점화형-IAT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IAT는 인지능력과 주의가 필요한 검사이므로

반복측정할 경우 연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본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IAT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구조의 연습형-IAT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점화조건의 참여자들은 1) 연습형-IAT, 2) 기본형-IAT, 3) 점화형-IAT 순으로 수행하였고, 통제조건 참여자들은 1) 연습형-IAT, 2) 기본형-IAT, 3) 기본형-IAT 순으로 수행하였다. 각 IAT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형-IAT

IAT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적대상³⁾(코피노 어머니)과 특성자극⁴⁾(긍정·부정 단어)이 필요하다. 표적자극들로는 코피노 어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코피노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는 ‘코피노엄마’, ‘Jake엄마’, 및 ‘소피아’를 사용하였다.

- 3) 표적대상: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대상과 관련된 상징어들이 자극으로 사용된다(예: 표적대상-과일, 상징어-사과, 포도, 자두).
- 4) 특성자극: 대상과 연합되는 특성범주를 구성하는 자극으로, 상반된 특성을 대응시킨 구조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정서적 평가가 목적인 경우 대개 ‘긍정 vs 부정’ 대응구조를 사용한다.

긍정·부정 특성자극으로는 배재창과 한규석(2015)이 선정한 긍정명사 10개와 부정명사 10개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성은 1점이 ‘매우 부정적’, 7점이 ‘매우 긍정적’인 척도로, 친숙도는 단어의 경험 수준을 1점이 ‘매우 적게’, 7점이 ‘매우 많이’인 척도로 측정했다. 긍정단어로는 ‘행복’, ‘사랑’, ‘평화’, ‘기쁨’, ‘건강’, ‘감사’, ‘희망’, ‘신뢰’, ‘생명’, ‘미소’ 등 10개가 선정되었고(긍정성 평균 = 6.38($SD = 0.67$), 친숙도 평균 = 5.5($SD = 1.09$)), 부정단어로는 ‘폭력’, ‘전쟁’, ‘질병’, ‘불행’, ‘불신’, ‘배신’, ‘절망’, ‘구토’, ‘미움’, ‘고통’ 등 10개가 선정되었다(긍정성 평균 = 1.91($SD = 0.85$), 친숙도 평균 = 4.41($SD = 1.42$)). 한편 필리핀에서 사용할 검사에는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특성자극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필리핀 대학생 25명(남성 10명, 여성 15명)에게 특성자극들의 긍정성과 친숙도를 선행연구처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해본 결과, 긍정단어는 긍정성이 평균 6.34($SD = 0.84$), 친숙도가 평균 5.79($SD = 1.38$)였고, 부정단어는 긍정성이 평균 2.05($SD = 1.40$), 친숙도가 평균 4.28($SD = 1.31$)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가 유일한

표적대상이므로, 표적자극 및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반응횟수가 동일할 경우 반응방향(좌:우)에서 10(부정+표적):5(긍정)나 5(부정):10(긍정+표적)으로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Karpinski & Steinman, 2006).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전과제에서 회기당 반응비율을 ‘코피노 어머니+긍정’조건은 5(코피노 어머니)+5(긍정):7(부정), ‘코피노 어머니+부정’조건은 7(긍정):5(부정)+5(코피노 어머니)로 균형을 맞추어 각 3회기 51시행으로 구성하였다. 기본형-IAT의 구성과 절차는 그림 1과 같았는데, 한국어 양식과 영어 양식은 언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의 참여자들은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각 10회 변별하였고(블록①),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에 ‘코피노 어머니’가 한쪽에만 추가된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한 다음(블록②), 동일한 조건의 실전과제 51시행을 수행하였다(블록③). 첫 번째 실전과제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하였고(블록④), 마지막으로 동일한 조건의 두 번째 실전과제 51시행을 수행하였다(블록⑤).

모든 블록에서 자극의 제시순서는 무작위이지만 모든 자극들이 한 번씩 골고루 제시되도

표 4. 암묵적 연합검사의 분류 항목별 자극 단어 목록

구분	분류 항목	자극 단어
표적	코피노엄마 (Kopino Mom)	코피노엄마(Kopino Mom), Jake엄마(Jake's Mom), 소피아(Sophia)
특성	긍정단어 (Positive)	행복(Happiness), 사랑(Love), 평화(Peace), 기쁨(Delight), 건강(Health) 감사(Gratitude), 희망(Hope), 신뢰(Confidence), 생명(Life), 미소(Smile)
	부정단어 (Negative)	폭력(Violence), 전쟁(War), 질병(Disease), 불행(Misfortune), 불신(Distrust) 배신(Betrayal), 절망(Despair), 구토(Vomit), 미움(Hate), 고통(Pain)

주. 괄호 안은 필리핀 참여자용 영어 양식에 사용된 영어표현. IAT에서 표적자극은 상아색, 특성자극은 녹색으로 제시

블록①	블록②	블록③	블록④	블록⑤
특성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코피노엄마* 긍정* *부정
20시행(10:10)	24시행(14:10)	51시행(30:21)	24시행(10:14)	51시행(21:30)

그림 1. 코피노 어머니를 단일표적으로 하는 IAT의 절차
(전체 170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괄호 안은 좌:우 시행 수)

록 설정했다(명령어 'noreplace'). 아울러 순서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코피노 어머니 + 긍정'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코피노 어머니 + 부정'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하였다. 검사는 부정단어 및 부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왼쪽(Z키), 긍정단어 및 긍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오른쪽(X키)으로 변별하도록 구성했다. 검사 수행 중 참여자가 틀린 방향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자극단어 아래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드백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맞게 반응한 경우에는 따로 피드백하지 않았다.

본 검사는 처치 전 기저선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1차 측정에서 본 검사를 수행하였고, 통제조건의 경우 2차 측정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점화형-IAT

참여자들에게 기독교를 점화하기 위해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물인 십자가를 사용하였다(노종해, 2002). 구글(www.google.co.kr)에서 'Cross(십자가)'로 사진을 검색하여 십자가는

5)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cross&tbm=>

밝고 배경은 어두운 흑백사진을 선택하였고, 해상도⁶⁾를 240:180px로 조정하였다. 이 사진을 기본형-IAT의 화면 위쪽에 그림 2와 같이 삽입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십자가 사진 이외의 구성요소 및 절차는 기본형-IAT와 같았다. 그런데 본 검사는 점화조건에서만 2차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연습형-IAT

표적대상을 '코피노 어머니'에서 '자신(Myself)'으로 교체했지만, 특성자극인 긍정·부정 단어 및 구성은 다른 검사들과 동일했다. 표적자극으로 한국어 양식에서는 '나', '자기', 및 '자신'을 사용했고, 영어 양식에서는 'My', 'Me', 및 'Myself'를 사용했다. 실험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이 검사를 수행한 후 코피노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연습을 위한 용도이므로 이 검사의 결과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isch&tbm=

6) 실험용 PC 운영체제는 Microsoft Windows 10이며, 17inch 모니터에서 화면 해상도는 1024:768px로 설정하였다.



그림 2. 기본형-IAT와 점화형-IAT의 실행화면
(왼쪽은 기본형-IAT, 오른쪽은 점화형-IAT, 아래는 영어 양식)

명시적 평가 척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김혜숙(2007)과 같이 대상에 대한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각 요인별 문항과 척도 구성은 표 5와 같았다. 참여자들은 1·2차 측정에서 IAT를 수행하기 전 ‘코피노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호감도), ‘코피노 어머니’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신뢰성), 미래에 자신

표 5.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문항과 척도

구분	문항	척도
호감도	당신은 ‘코피노 엄마(소피아)’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1=매우 싫다 ⇔ 6=매우 좋다
	How much do you like ‘Kopino Mom (Sophia)’?	1=Dislike strongly ⇔ 6=Like strongly
신뢰성	당신은 ‘코피노 엄마(소피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1=매우 불신 ⇔ 6=매우 신뢰
	How much can you trust ‘Kopino Mom (Sophia)’?	1=Distrust strongly ⇔ 6=Trust strongly
사회적 거리감	미래에 당신의 자녀가 ‘코피노(Jake)’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할까요?	1=매우 반대 ⇔ 6=매우 찬성
	How much would you accept Kopino (Jake) as a part of the family by marriage?	1=Oppose strongly ⇔ 6=Accept strongly



그림 3. 십자가가 배경에 위치한 2차 설문지(점화조건)

의 자녀가 ‘코피노’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사회적 거리감) 평가했다. 또한 1차 측정에 사용되는 설문지에는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및 정치성향(4점 척도로 1=매우 진보적, 4=매우 보수적)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그런데 기독교 점화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이 문항을 작성하기 전 점화자극을 볼 수 있도록 그림 3에 나온 것처럼 2차 설문지 상단에 십자가 사진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실험 절차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다른 참여자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좌석을 지정하였다. 참여자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실험이 짧은 설문지 2개와 단어자극을 좌우로 분류하는 간단한 컴퓨터 검사 3개로 구성되어 총 40분 간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 실험 과정 및 조건별 검사 유형은 그림 4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연구목적과 실험에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서 참여

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실험 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도록 안내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여자들에게 참여자번호(7) 작성방법 및 IAT 수행방법을 설명한 후 연습형-IAT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연습형-IAT를 마치면, 1차로 명시적 평가 척도를 배부하여 평가한 후 기본형-IAT를 실행하도록 안내하였다. 1차 측정이 끝나면 2분 동안 휴식한 후, 점화조건(매일 홀수 번째 참여 집단)에서는 ‘십자가 사진’이 추가된 2차 측정용 명시적 평가 척도와 점화형-IAT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통제조건(매일 짝수 번째 참여 집단)에서는 1차 측정과 동일한 척도 및 기본형-IAT를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이 2차 측정을 완료하면 연구목적과 IAT의 원리 등을 설명하고서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응답한 후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7) 참여자번호는 총 5자리 숫자조합으로 구성하는데, 첫째 자리는 성별(남성 1, 여성 2), 둘째와 셋째 자리는 연령(예: 21), 마지막 두 자리는 참여한 순서에 맞춰 번호를 지정해 주었다. 예컨대 3번째로 참여한 21살 남성의 참여자번호는 1210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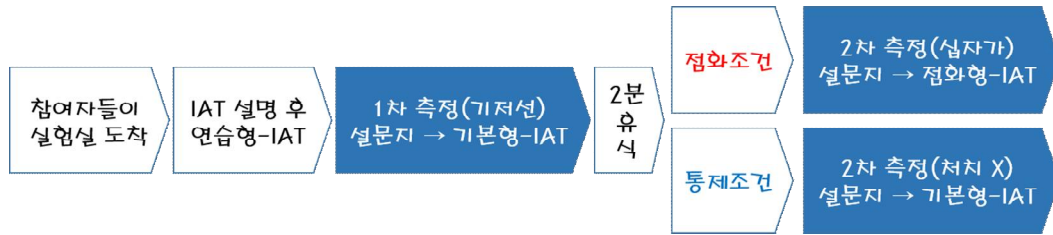


그림 4. 실험 과정에서 조건별 참여자들이 수행했던 검사 유형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실험 중 통제에 따르지 않은 한국 여학생 1명과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6명(한국: 남성 1명 + 여성 3명, 필리핀: 남성 1명 + 여성 1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108명(한국: 남성 15명 + 여성 46명, 필리핀: 남성 12명 + 여성 35명)의 검사결과를 분석했다. 우선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는 호감도, 신뢰성, 및 사회적 거리감 결과의 종합평균을 산출하였다.

암묵적 평가에서 오반응은 각 검사의 정반응 평균에 400ms를 더한 후 재입력하고 (Karpinski & Steinman, 2006), 전체 102개 반응 중에서 표적인 코피노 어머니와 연합되지 않은 42개 반응을 제거한 후 코피노 어머니+긍정조건에서 30개 반응과 코피노 어머니+부정조건에서 30개 반응을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각 조건별 평균값을 전체 60개 반응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코피노 어머니+긍정 D값(이하 긍정 D값)’과 ‘코피노 어머니+부정 D값(이하 부정 D값)’으로 변환한 후, 그 차이값으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평가 D값(부정 D값 - 긍정 D값, 이하 평가 D값)’을 산출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여기서 긍정 및 부정 D값은 개인의 조건별 반응시간을 표준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느린 반응을 의미한다. 그런데 평가 D값은 수치가 낮을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이다.

자료 변환 후 1차 측정 결과에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의 상관관계를 국가별로 살펴보고, 각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에 따른 점화효과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코피노 어머니 평가에 미치는 국가조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 및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측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삼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국가별로 기독교가 점화된 조건이 통제조건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과 반복측정(집단 내: 1차, 2차 측정)의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차 측정 결과(가설 1)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이 1차 측정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성별, 정치성향,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코피노 어머니

표 6. 국가별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한국(n=61)	성별	정치성향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성별	1.00	-.10	.17	.36**
정치성향		1.00	-.24	-.03
명시적 평가			1.00	.30*
암묵적 평가				1.00
평균	-	2.25(0.51)	4.13(0.76)***	0.11(0.38)*

필리핀(n=47)	성별	정치성향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성별	1.00	.25	-.03	.02
정치성향		1.00	.03	-.33*
명시적 평가			1.00	.12
암묵적 평가				1.00
평균	-	2.15(0.55)	5.22(0.66)***	0.28(0.3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암묵적 평가는 평가 D값이며, 두 평가값은 클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좋아함. 국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유의수준을 양쪽에 모두 표시하였음. *** $p < .001$, ** $p < .01$, * $p < .05$

에 대한 암묵적 평가 결과의 평균 및 각 측정치 사이의 상관계수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서 한국 참여자들은 평균이 4.13($SD = 0.76$)으로 조금 좋게 평가하였는데, 필리핀 참여자들은 평균이 5.22($SD = 0.66$)로 더 좋게 평가하여 국가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106) = -7.771, p < .001$.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서도 한국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은 평균이 0.11($SD = 0.38$)로 중립에 가깝지만 조금 좋아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은 평균이 0.28($SD = 0.31$)로 한국 참여자들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06) = -2.486, p < .05$.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인은 필리핀인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이 명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국가별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를 함께 고려할 경우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조금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이 명시적 차원과 달리 암묵적 차원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편견을 보이리라 예상했던 가설 1-1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참여자들의 성별을 구분하여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남성 참여자들의 평균은 -0.12 ($SD = 0.28$)로 조금 싫어하는 수준이었고, 여성 참여자들의 평균인 0.19 ($SD = 0.38$)와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t(59) = -2.929, p < .01$.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국 참여자들의 전체평균은 조금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참여자들의 평가 D값이

중립에 가까웠고 필리핀 참여자들에 비해 부정적이었으므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지지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좋아했고, 암묵적으로는 조금 좋아했다. 따라서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각 측정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ns).

아울러 국가별로 참여자들의 정치성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평균 2.25)과 필리핀(평균 2.15) 모두 진보적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06) = .951, p = .344$.

앞서 살펴본 측정변인들에 성별을 추가한 후 국가별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이 $r = .30$ 으로 의미 있었고, 참여자들의 성별과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 역시 $r = .36$ 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한국 참여자들의 내외현적 평가가 어느 정도 부합하고, 암묵적 차원에서는 여성일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더 좋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D값)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ns), 정치성향과 암묵적 평가(D값)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 = -.33$). 이는 필리핀 대학생의 경우 보수적일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싫어한다는 의미이다.

암묵적 평가 D값을 긍정평가 조건(긍정 D값)과 부정평가 조건(부정 D값)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가 그림 5에 나와 있다. 한국 참여자들은 긍정 D값의 평균이 3.81($SD = 1.1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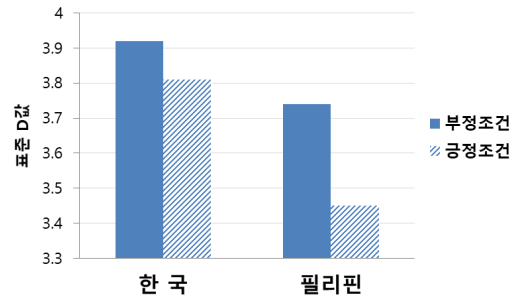


그림 5. 국가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긍정평가 D값과 부정평가 D값

부정 D값의 평균인 3.92($SD = 1.1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60) = 2.343, p < .05$.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은 긍정 D값의 평균이 3.45($SD = 1.29$)로 부정 D값의 평균인 3.74($SD = 1.33$)보다 훨씬 낮았다, $t(46) = 6.280, p < .00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이 ‘코피노 어머니+긍정’조건에서 ‘코피노 어머니+부정’조건보다 빠르게 반응했지만, 그 차이가 필리핀 참여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측정 결과(가설 2)

십자가 사진으로 기독교를 점화한 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로 기독교 점화조건과 통제조건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표 7에는 국가 및 처치조건별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D값)의 반복측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국적에 따라 기독교의 점화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본 결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 미치는 국가조건(집단 간: 한국, 필리핀)과 처치조건(집단 간: 기독교 점화vs통제조건) 및 반복측정(집단 내:

표 7. 국가 X 처치조건에 따른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의 변화

구 분	명시적 평가			암묵적 평가 D값				
	1차	2차	변화량	1차	2차	변화량		
한국	기독교 접화	33명	4.24(0.83)	4.26(0.88)	0.02	0.17(0.35)	0.22(0.32)	0.04
	통제조건	28명	4.00(0.67)	3.86(0.60)	-0.14	0.04(0.40)	0.14(0.33)	0.10
필리핀	기독교 접화	26명	5.01(0.60)	5.14(0.53)	0.13	0.26(0.27)	0.43(0.24)	0.17
	통제조건	21명	5.48(0.66)	5.44(0.67)	-0.04	0.30(0.35)	0.23(0.41)	-0.07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두 평가값은 작을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함.

1차, 2차 측정)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04) = 0.001, p = .982$. 각국의 처치조건별 명시적 평가의 변화가 나와 있는 그림 6을 보면 기독교 접화조건이나 통제조건에서 나타난 변화양상이 두 국가에서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D값)에 미치는 ‘국가조건’과 ‘처치조건’ 및 ‘반복측정’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104) = 4.201, p < .05$. 세부적인 변량분석 결과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암묵적 평가(D값)의 변화가 나와 있는 그림 7을 보면 필리핀에서만 기독교 접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통제조건과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접화로 인한 효과는 한국인보다 필리핀인에게서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는 명시적 평가에서는 지지받지 못했지만 암묵적 평가에서는 지지되었다.

아울러 국가별로 처치효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한국의 경우 명시적 평가에서 처치조건(접화 vs 통제)과 반복측정(1차 vs 2차)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F(1, 59) = 2.524, p = .117$, 암묵적 평가에서도 ‘처치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⁸⁾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9)$

8) 한국에서는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암묵적 평

$= 0.411, p = .524$.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참여자들에게 기독교를 접화했지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내외현적 평가는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명시적 평가에서 처치전부터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45) = -2.512, p < .05$. 따라서 반복측정 변량분석⁹⁾ 대신 ‘처치 전 명시적 평가’를 공변인으로 통제 한 후 ‘처치조건(독립변인)’에 따른 ‘처치 후 명시적 평가(종속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1, 44) = 1.748, p = .193$, 그러나 암묵적 평가에서는 ‘처치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F(1, 45) = 4.159, p < .05$. 그림 7에서 필리핀 참여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독교 접화조건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암묵적

가(D값)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암묵적 평가에 대한 성별(남vs여)과 처치조건(접화vs 통제) 및 반복측정(1차vs2차)의 상호작용효과를 삼원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지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57) = 0.422, p = .518$.

9) 필리핀 자료에서 명시적 평가에 대한 ‘처치조건’과 ‘반복측정’의 이원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45) = 4.636, p < .05$.



그림 6. 한국과 필리핀의 처치조건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의 변화 (처치 전 한국은 조건별 차이가 없으나, 필리핀은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함)



그림 7. 한국과 필리핀의 처치조건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의 변화 (두 국가 모두 처치 전 조건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표 8. 암묵적 평가 D값에 대한 국가와 처치조건 및 반복측정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F	η^2	p
집단 간				
국가(A)	1	8.885	.079	.004
처치조건(B)	1	2.746	.026	.101
A X B	1	.040	.000	.842
집단 내 오차(S/AB)	104	(.160)		
집단 내				
반복측정(C)	1	2.929	.027	.090
C X A	1	0.102	.001	.750
C X B	1	1.585	.015	.211
C X A X B	1	4.201	.039	.043
집단 내 오차(CXS/AB)	104	(.06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평균제곱오차(MSE)를 나타냄.

으로 더욱 좋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조건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 D값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필리핀 참여자들에게 기독교를 접화하면 코피노 어머니를 더욱 좋아할 것’이라는 가설 2-1이 명시적 평가에서는 지지받지 못했지만, 암묵적 평가에서는 지지되었다.

논 의

문화는 사람들이 대상이나 사건을 인식하는데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공하므로, 문화가 다르면 동일한 대상을 관찰하더라도 관점이 다르게 되어 전혀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김정운, 한성열, 1998; 최상진, 한규석, 2000;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그런데 코피노 문제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인과 필리핀인은 각자의 관점으로 코피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필리핀에서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에서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코피노 탄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기독교가 접화되었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코피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부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이 코피노 가족에 대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기호일보, 2016. 11. 14 등). 따라서 한국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 차원에서는 좋아한다고 응답하리라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 조금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정현미, 2011),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도 암묵적 편견을 지니기 때문에 암묵적 차원에서는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하리라 예상하였다(한민, 2011). 하지만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싫어하지 않았다. 앞서 한민(2011)은 동남아시아인들의 얼굴사진을 사용하여 암묵적 편견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인종과 관련된 정보 없이 문자자극만 제시했으므로 시각적 정보에 따른 편견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참여자들의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에서 남성들은 싫어한 반면에 여성들은 싫어하지 않았기에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여성들에게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는 일관되게 나타났다지만 남성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남성들이 명시적 평가에서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좋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Fazio & Olson, 2003). 한편 한국 여성들이 예상과 다르게 암묵적 편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코피노 문제에서 한국 남성을 가해자로 여기지만 같은 여성이면서 피해자인 코피노 어머니에게는 공감하게 되어 거리감이 줄어든 결과로 판단된다. 즉 코피노 문제에서 한국 여성들은 한국 대 필리핀이 아닌 남성 대 여성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필리핀에서 낙태가

불법인지 모를 경우 코피노의 출산을 어머니의 선택으로 여길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했을 수 있다(Hafer, 2000). 아울러 자신이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자신과 같은 한국 남성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한국 남성들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비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반감을 표출했을 수도 있다(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그리고 가부장성이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코피노 어머니처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김혜영, 2013; 심미혜 & Endo, 2011). 그런데 한국의 남성들은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가장 강하고, 한국 여성들과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Glick et al., 2000).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국 남성들만 코피노 어머니를 싫어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코피노 어머니가 필리핀인이고 필리핀에는 코피노 가족과 같은 결혼가족이 많으므로, 필리핀인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편견을 보이지 않으리라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은 예상대로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 좋게 평가했고, 암묵적으로도 조금 좋아하였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각 측정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필리핀 남성들이 코피노 문제에 대해 남성 대 여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필리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필리핀 참여자들은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 차원에서 싫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성향과 명시적 평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성향자들 역시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 좋게 평가하여 진보성향자들과 차이가 없었으므로 전체 평균이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필리핀 자료에서는 명시적 평가가 획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암묵적 평가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참여자들의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에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 및 암묵적 평가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는데, 필리핀 참여자들이 모든 차원에서 한국 참여자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암묵적 평가에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을 분리한 후 비교해본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은 긍정반응이 부정반응보다 현저히 빨랐고 그 차이가 한국 참여자들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필리핀에서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편견이 상대적으로 약한 필리핀에서 생활하던 코피노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견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 가족에게 강한 반감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코피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코피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낙태금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코피노를 출산하였고, 코피노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며 한국문화를 동경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면, 그들에 대한 심상(image)을 더 친근하게 바꾸고,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Blair, Ma, & Lenton, 2001). 또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약화시킬 필요도 있다.

2차 측정에서 십자가 사진을 제시하여 기독교를 점화하였을 때, 필리핀 참여자들은 예상대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였다. 하지만 명시적 평가에서는 기독교 점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명시적 측정에서는 자신의 1차 평가결과를 알 수 있었고 2차 평가에서도 동일한 문항들이 사용되었으므로, 1차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2차 평가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아울러 1차 측정에서 필리핀 참여자들의 명시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2차 측정에서 기독교 점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2차 측정에서 십자가는 명시적 평가에서는 단시간 동안 한 번만 노출되었던 반면, 암묵적 평가에서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암묵적 평가에서는 십자가가 반복 점화되어 더 큰 변화를 야기했을 수 있다.

실제로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는 1차 측정에서는 조금 좋아하는 수준(D값 = 0.26)이었지만, 2차 측정에서는 좋아하는 수준(D값 = 0.43)으로 변화하였다(Nosek et al., 2007).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필리핀 참여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선호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을 떠올렸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십자가로 인한 점화과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먼저 코피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코피노 어머니가 낙태를

거부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로 기독교와 함께 낙태금지나 생명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활성화되어 동정심이나 공감이 증가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활성화된 결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노종해, 2002; 신흥임, 김민식, 2012).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우리성이 고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배재창, 한규석, 2015). 하지만 정확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참여자들은 십자가가 제시된 이후에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명시적 평가와 암묵적 평가가 변화하지 않았다. 한국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하지만 필리핀처럼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십자가를 보았을 때 기독교나 사랑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비해 적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므로(한덕웅, 2001), 제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소수 기독교 단체들이 극우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 중 일부는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게 되었다(뉴스앤조이, 2017. 12. 27). 이러한 원인들이 한국에서는 십자가 점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십자가 제시에 의한 점화효과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암묵적 평가에 대한 국가 × 처치조건 × 반복측정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 암묵적 차원에서 문화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십자가를 보았을 때 교

회공동체, 생명존중, 사랑 등의 정보들이 활성화되어 타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상징체계로서 십자가가 갖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최상진, 한규석, 1998). 따라서 한국에서는 십자가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보다 적기 때문에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코피노 문제에서 갈등 당사자들은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 및 코피노로 구분된다. 그런데 한국과 필리핀은 종교와 언어 등 문화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코피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 차원에서 덜 좋아하고, 특히 한국 남성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십자가로 인한 점화효과가 필리핀과 한국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코피노 및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평가에 적용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보다 코피노 혹은 결혼이주여성을 암묵적으로 더 싫어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처럼 기독교 신자가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십자가를 점화할 경우 십자가와 연합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피노 어머니를 비롯한 미혼모가 필리핀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매우 적으므로, 미혼모에 대해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게 되면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 미혼모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한국의 미혼모와 관련하여 코피노 문제에 비해 비난을 적게 받을 경우 편견이 비교적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코피노 어머니와 관련된 가설들이 대부분 지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남성 참여자들이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적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성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를 구분하여 남성 참여자부터 모집한다면 성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 십자가가 점화되었을 때 어떤 정보들이 활성화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진을 제시하여 점화할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떠올랐는지 실험 중에 확인하거나(배재창, 한규석, 2015), 환기시킬 정보들을 바로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들보다 강하게 활성화시키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Blair et al., 2001). 그리고 필리핀 참여자들에게 미혼모로서 코피노 어머니가 아니라, 한국과 대응되는 필리핀인으로서 코피노 어머니가 부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해보면 어떤 내용이 더 부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에 중점을 둔 나머지 참여자들의 종교를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가 지배적인 필리핀과 달리 한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국가 간 차이에서 종교 간 차이를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종교로 인한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참

여자들의 종교를 조사하여 양국의 기독교인 집단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참여자들의 종교에 따라 십자가의 점화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코피노 가족은 어머니와 코피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코피노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참여자들의 정치성향과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정치성향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참여자들은 정치성향의 분포가 필리핀 참여자들과 유사하였지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정치성향과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이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호일보 (2016. 11. 14). 코피노 가족들 ‘한국 어촌·바다 체험 만끽’: 평택해경, 이틀간 초청 프로그램 진행 수상레저기구 탑승·어촌마을도 방문.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115-13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김희경 (201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529-562.
- 김희주, 주경희, 우수명 (2013). 국제(지역)사회 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코피노 어린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135-165.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노종해 (2002). 동남아 이슬람-기독교 분쟁지역과 한국 기독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46(4), 36-55.
- 뉴스앤조이 (2017. 12. 27). 박근혜 탄핵에서 드러난 보수 개신교의 민낯.
- 데일리팜 (2017. 1. 24). 법과 현실 괴리 속 ‘낙태’...하루 3000명 이상 수술: 낙태수술 95%가 ‘불법’...대부분 낙태 허용 요건 잘 몰라.
- 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한 지역정체감 연구: 광주의 사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49.

- 배재창, 정재훈, 한규석 (2012). 초등학생의 인종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 274.
- 배재창, 한규석 (2015).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가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39-62.
- 보건복지부 (2015). 모자보건법. <http://www.law.go.kr>
- 부산일보 (2017. 3. 23).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필리핀 봉사.
- 성은영, 권지은, 황순택 (2012). 다문화가정 시 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63-383.
- 세계일보 (2015. 9. 2). '18 코리아' 코피노를 아시나요?
- 신학진 (2013). 중년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집단 접촉경험이 차별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9(4), 113-134.
- 신홍임, 김민식 (2012). 사랑의 점화와 지각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13.
- 심미혜, Endo, Y. (2011).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1), 1-17.
- 안문석 (2016). 두테르테의 미중 등거리외교와 그 함정. 인물과사상, 221, 111-123.
- 양숙미 (2009). 초등학생 대상 한 부모가족에 대한 반 편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한국 아동복지학, 29, 7-27.
- 여성신문 (2016. 10. 6). 한국 남성이 버린 '코피노'...친자확인소송에도 유전자 검사 거부.
- 여성신문 (2016. 10. 24). 버림받은 코피노 외면하는 한국 정부.
- 연합뉴스 (2016. 5. 5). 아빠 보고 싶어요... '코피노' 어린이 소송 줄이어.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 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장명선 (2015). 다문화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공공사회연구, 5(4), 72-106.
- 장준오, 이완수, 고성혜 (2011).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은희 (2015). 저소득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외교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중도탈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3), 5-45.
- 정현미 (2011). 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2(2), 109-134.
- 주필리핀 대사관 (2015). 2015년 필리핀 재외동포현황.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
- 지충남 (2015). 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Oughtopia, 30(1), 269-305.
- 최상진, 한규석 (1998). 지역정체감의 상징적 구성. 지역사회의 심리학적 연구, 8-1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통계청 (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http://kostat.go.kr>
- 한국관광공사 (2016).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
- 한국일보 (2016. 1. 6). 화려한 춤의 축제, 세부 시놀록 페스티벌.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한민 (2011). 문화진화론적 인종도식의 영향: 한국인들의 인종에 대한 이중적 태도. *아세아연구*, 54(2), 323-351.
- 홍기대 (2011). 다문화 가정 학생 편견 감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모색: 광주, 전남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381-394.
- Bargh, J. A. (1989). Conditional automaticity: Varieties of automatic influence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3-51). New York: Guilford Press.
- Baron, A. S., & Banaji, M. R. (2006). The development of implicit attitudes: Evidence of race evaluations from ages 6 and 10 and adulthood. *Psychological Science*, 17(1), 53-58.
- Blair, I. V. (2001). Implicit stereotypes and prejudice. In G. B. Mosk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pp. 359-374). Mahwah, NJ: Erlbaum.
- Blair, I. V., Ma, J. E., & Lenton, A. P. (2001). Imagining stereotypes away: the moderation of implicit stereotypes through mental image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28-841.
- Da-Anoy, M. A. (2016). The Embodiment of Filipino-Japanese Identity as Plural Subjects: Everyday Articulations of Multicultural Roots. *Journal of Nagoya Gakuin University Social Sciences*, 53(2), 163-182.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 Dovidio, J. F., Kawakami, K., Johnson, C., Johnson, B., & Howard, A. (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5), 510-540.
- Edelson, D. A. (2015). Children of Men: South Korea's Obligations to Binational Children in the Philippines. Retrieved from <https://ssrn.com/abstract=2544700>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297-327.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 & Annetje, B.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afer, C. L. (2000). Do innocent victims threat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Evidence from a modified Stroop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165-173.
- Jones, J. M., Dovidio, J. F., & Vietze, D. L. (2014). *The psychology of diversity: Beyond prejudice and racism*. Chichester UK: Blackwell.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elley, S., & Mirer, T. W. (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2), 572-591.
- Kü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5), 492-499.
- Megumi, H. (2013). What to call ourselves?: Representation and terminology of mixed heritage Japanese-Filipinos. In N. G. Balgoa (Ed.), *Langkit*(pp.89-108). Iligan: MSU-Iligan.
- Moreland, R. L., & Beach, S. R. (1992). Exposure effects in the classroom: The development of affinity among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3), 255-276.
- National Statistics Office Manila. (2004). *Philippines 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3*. Manila: National Statistics Office.
- Natividad, J. (2013). Teenage pregnancy in the Philippines: Trends, correlates and data sources. *Journal of the ASEAN Federation of Endocrine Societies*, 28(1), 30-37.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Nosek, B. A., Smyth, F. L., Hansen, J. J., Devos, T., Lindner, N. M., Ranganath, K. A., Smith, C. T., Olson, K. R., Chugh, D.,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Pervasiveness and correlates of implicit attitudes and stereotyp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1), 36-88.
- Olson, M. A., & Fazio, R. H. (2002). Implicit acquisition and manifestation of classically conditioned attitudes. *Social Cognition*, 20(2), 89-104.
- Sadorra, H. (2014). Starring Kopinos: From quest

- of the Korean dream to the making of a hero: Korean films as commentary to Philippine life and issues. In AIKS Korean Studies Conference Proceedings, pp. 120-121.
- Singson, R. B. (2008, June 20). Teen pregnancies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 Daily Inquirer*, Retrieved from <http://aboutphilippines.ph/documents-etc/Teen-pregnancies-in-the-Philippines.pdf>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UN Population Fund. (2016).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6*. New York: UNFPA.
- Voanews. (2016, July 7). Philippines only country in Asia where teen pregnancy rising. Retrieved from <http://www.voanews.com/a/philippines-teen-pregnancy/3407688.html>
- 논문 투고일 : 2018. 03. 05
1 차 심사일 : 2018. 03. 12
게재 확정일 : 2018. 05. 21

The Prejudice against Kopino Mothers: A Cross-cultural Study of Korea and Philippines

Jaechang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ortion is prohibited in the Philippines by the law of Christianity. Korean fathers wanted abortions when Filipino mothers were pregnant with their babies (Kopino). However, Filipino mothers had to give birth to the Kopino babies. Therefore, Kopino mothers bring up their babies alone. This study tried to measure and compare what Korean and Filipino evaluate towards Kopino mothers explicitly or implicitl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ir attitudes towards Kopino mothers change when the Christianity was prim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lipino participants, both explicitly and implicitly, liked more about Kopino mothers than Korean participants. Also, Korean participants showed a little positive explicit attitude and implicit attitude towards Kopino mothers. However, Korean males answered that they liked Kopino mothers at the explicit scale, but they had a negative attitude against Kopino mothers at the implicit level. After activating the Christianity by priming, Filipino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positive attitude towards Kopino mothers at the implicit level. On the other hand, Korean participants remained unaffected. Hence, the priming effect of Christianity varied by country. This study confirmed that Korean females didn't have prejudice against Kopino mothers like Filipino but Korean males had prejudice against them.

Key words : *Kopino mothers, Philippines,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Christianity*